

삶의 질을 높이는 길

강준식

소설가

기준의 잣대가 아직 하드웨어적인 것이었을 때 우리 모두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환상에 젖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몇년간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우리의 행정력도 교육도 기술도 유통구조도 시민의식도 다 낙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경우 나사가 풀렸는지 어쩌니 하는 지적은 너무 안일하고 피상적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언급하자면 역시 우리의 출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봐야 한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노하우(Know-how)를 배워 하드웨어를 쌓아올리느라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대량 수출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그래도 괜찮았다. 암기 위주의 교육도 나름대로 기여도가 있었다. 어차피 그런 시대는 사고력보다도 숙련된 근육이나 요령을 더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아질수록 Know-why 수준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최근의 각 대학들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되어가는 꼴은 좀 망칙하다. 학생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논술 요령을 습득하려고 한다.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은 알량한 논술시험 선수가 아니다. 고부가가치의 시대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은 기존의 원리가 왜 생겨났는지를 사고해 보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이치를 뛰어넘는 생각,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소프트웨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Know-what의 수준이어야 한다. 새 시대의 부(富)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개인과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현상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같은 창의적 인적자원이 일차적으로는 '책'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다. 가령 하나의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한 두꺼운 책을 읽고 자란 학생과 공식만 달랑 외어 응용문제만 풀고 자란 학생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사고력의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한 학기에 전공 관련 서적을 한권도 채 읽지 않는 한국대학과 거의 일주일에 한권씩 읽히는 미국 대학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생겨날 것은 당연하다. 슬프게도 우리의 교육 현장은 학생간의 소모적인 경쟁만 존재하고 본질적인 '지적 긴장'이 없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새시대에 살아남겠는가?

이제 구구한 변명 따위는 필요없다. 논술시험이든 입시제도든 뭐든 모든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책읽는 습관을 붙일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학교를 나온 기성 세대의 독서풍토를 위해서는 공공 도서관 건립이라는 제도적 개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인구는 그 층이 너무 얇고 또 변덕스럽다. 읽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란 기성세대의 자화상이다. 이들의 자발적인 구매력에 의존해서는 양서 만들기가 퍽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공 도서관 건립을 입법화시켜, 군과 동단위의 공립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약 1만개쯤 세우고, 거기에 납본할 수 있는 길을 뚫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출판사쪽에서도 책의 질에 대해서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용이한 접근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확장된 독서제도를 통해 나라의 사활이 걸려 있는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의 장기적 전망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권두 인터뷰	2	조선시대를 이끈 지성의 한 줄기를 찾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펴낸 이수건 교수
표지	4	출판에도 물류혁명의 시대 열린다 한국출판유통 창립 등 유통기구들 현대화
초점	6	지구촌에 펼쳐지는 '한국문학' 한마당 문예진흥원·대산재단 등 번역지원 활발
시론	8	사회적공백기에 난무하는 '사이비' 출판물물 - 정경희
출판 논단	9	새로운 추천도서 목록을 위하여 - 허병두
특집/출판기획의 새 물결	10	개인의 삶에서 당대 역사를 읽는다 11 지적 호기심 이끄는 다양한 문화인류서들 12 '트렌드' 읽는 섬세한 실용정보 인기 13 한 손에 들고다니기 좋은 고급교양물 확산
21세기의 출판 주역들	14	완성도 높은 책에 '한뎛' 모은다
출판계 소식	15	초대형 유통기구 본격 출범·외
신간읽기	16	리처드 로즈의 《원자폭탄 만들기》-이창건 17 와다 히데끼의 《튀는 신세대, 숨는 신세대》-김정일
책이 있는 에세이	18	서재에 관한 변명 - 한용환
확대 서평	19	이혜구 지음 《한국음악논고》-송방송
서평	20	장주근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천혜숙 21 송희복 《한국문학사론 연구》-김만수 22 크로포드 《칸트미학이론》-김광명 23 조우현 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황석만
새책 흐름	26	정약용 문학정신과 사상의 진수·외 / 인문·사회 28 혁명적 전환 요구되는 '우주론'의 시대·외 / 과학·기타
이 책 그 사람	30	《부자의 그림일기》 펴낸 오세영씨 《내 마음의 출발》 펴낸 황명걸씨 31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펴낸 김경옥씨 《정보통신 대전》 펴낸 주호석씨
책과 영상	32	20세기의 영상 속에 새로 태어난 '제인'
재미있는 기획산책	33	과거 속에서 만나는 역사인물 - 장익순
	34	신간안내 / 42 새로 나온 책